

(제가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소한 지금의 직장보다는 여러모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으므로 자신 있게 현재 재직 중인 직장보다 한 단계 높은 중견기업 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기독교인 것을 알고 질문 중에는 이러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우선이냐, 직장이 우선이냐?”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교회가 우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면접 결과는 보기 좋게 탈락이었습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담대하라 크게 외치라’ 는 표어를 주셔서 잠깐의 의기소침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다잡고 더욱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소현 권찰이 추천해 준 ‘충남산학융합원’이라는 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기관이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류가 통과되고 면접을 최선을 다해서 보긴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정말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득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면접을 정말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생각지도 못한 합격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제게 일어나길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결과 발표 하루 전날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분은 음... 한마디로 짜릿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10월 1일부로 입사라 추석 끝난 10월 5일부터 출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참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물론 1년 3개월이라는 계약직이 좀 걸리긴 하지만 면접 볼 때에 제가 면접관들에게 말했듯이 열심히만 하면 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세상에 이만한 완벽하고 확실한 보험이 있을까요?? 1년 3개월 뒤인 2022년 1월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요!! 저의 부족한 간증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긍정적인 자극 받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기도해 주며 지지해 준 내 평생의 사랑인 김소현 권찰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팀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0년도 표어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시 138:8)	<b>NEW</b> <b>순복음Life</b> 제54호
--	--------------------------------------



“교회가 우선이냐,  
 직장이 우선이냐?”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교회가 우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튼튼한 가장  
 민이삭 권찰**



-민이삭 관찰-

샬롬~ 간증으로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 뵙는 민이삭권찰 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글로 찾아뵈어 더욱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간증을 통해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딱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절실할수록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 드린 기도는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다시금 경험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보여 드리기를 위한 방법으로 금식 기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십니다.

7월 중순의 일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오전 부서 모임 중에 뜬금없이 임원들 사이에서는 작년 말부터 언급된 내용인데 심사숙고 끝에 이제야 확정되어서 말한대며 작년에 인수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 회사가 위치한 대전으로 저희 기업부설연구소가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팀장님께서 다른 사람은 총각이라 상관없는데 민대리는 가정집이 있어서 만약에 같이 안 간다고 하면 시국이 시국인 만큼 걱정된다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사에서의 내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선뜻 괜찮다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7월 생활실천 표어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였던 것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임 한 명이 말하길 대리님께서 고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겠다고 하길래 당연히 같이 간다고 대답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이직이 쉽지 않고 애도 돌이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했겠죠. 하지만 그건 저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팀장님께서 저만 따로 불러 기숙사며 교통비며 지원해 주니

웬만하면 같이 가자고 다음 주까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달라시길래 김소현 권찰과 의논하고 목사님과 상담 후 시간이 되어 퇴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민대리는 가정과 교회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고 어느정도 예상은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 이전 날짜는 추석 지난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9월 30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은 두달 동안 업무 외적인 시간은 이직 준비하라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입사 지원한 서류가 통과하여 면접을 볼 때면 연차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외근으로 처리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신 만큼 이번에는 40일 금식기도(하루 한끼)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직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바짝 정신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정 12시부터 정오 12시까지 하던 중 하루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오랜만에 토요일 축구를 하게 된 날이었는데 날은 덥고 땀수룩 입은 바짝 마르고 목은 타고... 평상시 같으면 물을 먹어도 한창 먹고도 남았을텐데.. 어떻게든 끝까지 참으며 마쳤습니다. 김소현 권찰이 마침 음료수를 사와 당연히 12시가 넘은 줄 알고 음료수 한 모금을 머금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11시 58분 인거 있죠.. 그 즉시 음료수를 그대로 다시 뺀고 12시 넘어서 바로 마셨습니다. 당연한 행동이지만 순간 제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금식기도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키려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요^^ 40일의 작정기간 동안은 더욱 거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예로, 전에는 아침의 시작을 핸드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는 것이 부지기수였다면 무조건 먼저 성경 한 장을 읽고 시작하는 것으로 삶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저는 특히, 매일 금식을 마쳤을 때와 성전 밝기를 하며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열 몇 군데를 입사 지원하고 처음으로 보게 된 면접 때의 일입니다.

11. 세 자녀 중 같이 살고 싶은 자녀는 누구인가요?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 문화인데, 질문을 하니 나와 함께 살기 원하는 자녀로 꼭 선택하라면 성격이 잘 맞는 둘째 예원이요. 예원이가 좋아하려나요! 웃음

12. 천국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유언을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너희의 평생 삶 속에 절대적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두 번째는 인생 속에 만남의 축복을 받으며,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라.

세 번째는 모든 삶 속에서 자족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13. 사모님이 알고 계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곳. 먼저 가신 선조님들과 만나는 곳. 예비 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곳입니다.

14. 성도는 (나의 보물 )이다.

15. 이영주 세 글자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는

영- 영광스런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신 나의

주-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난 것이 큰 복입니다

16.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정책을 펼치고 싶으세요?

백성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백신 만들기에 적극 지원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이 아닌 평등 정책

17. 우리 교회의 바라는 것과 칭찬 할 것을 말씀 해 주세요.

바람 : 전도에 더 열정 갖기. 영성 있는 일에 힘쓰기.

칭찬 :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도 간에 화목하려고 애쓰는 모습.



나도 이럴때가 있었다.

-이영주 사모님-

1. 고향은 어디세요? 어린시절 사모님의 모습이 궁금해요.

고향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이구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 없는 집은 부모님을 측은해 하던 시절이라 딸만 셋인 우리 집을 보는 어른들께서 “네가 이 집에 아들 노릇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와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힘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칭찬받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덕분에 어리광도 못 부리고 조숙해졌지요.

2. 사모라는 자리 많이 힘드셨죠?

사모라는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좋은 자리인 줄만 알고 사모가 된 후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성숙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있던 경우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 사모님이 보시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족한 저에게는 든든한 남편(저의 핸드폰에 목사님은 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입력되어 있죠) 아이들에게겐 자상하고 섬세한 아버지여서 자녀들의 생각과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 성도들에게엔 바르게 양육 하시려고 어떨 때는 채찍으로, 어떨 때는 목자로서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 같고, 주변 동역자들에게엔 나누고 베푸시는 분이시죠.

4. 만약 사모님이 되지 않으셨으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결혼 전부터 칠보 공예를 했어요. 아마도 칠보 공예 사업, CEO가 되지 않았을까요.

5. 5년 전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사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에게 힘내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던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수술 후 병실에서 ‘힘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라는 찬양을 수없이 들었어요.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기쁨의 시간이었죠.

6.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실텐데요. 오늘 아침 보신 말씀은 어디 말씀이셨어요?

미가서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7. 예지 예원 예성이를 멋지게 양육하셨는데요. 아이들 키우시면서 사모님의 철칙 양육 노하우 등을 듣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이 저도 그러기를 원했으나 본이 못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요. 저의 양육의 철칙은 신앙으로 바로 서고 삶 속에서는 바른생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예의 바름을 많이 강조했죠. 타이트하게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노하우라는 것은 특별히 없지만 저는 내 자녀라 해서 특별대우는 안 했어요. 교회 아이들하고 큰 차이 없이 대한 것 때문에 더 별 탈 없이 자라준 것 같아요.

8. 지금 가시고 있는 그 길이 후회 된 적이 없으세요?

네~ 저는 사모의 길을 가면서 후회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어요.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 할 뿐입니다.

9.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  
두 번째는 목사님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과 만난 것.  
세 번째는 유방암이라는 아픔을 통해 치료의 주님을 만난 것.  
특히, 당진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10. 누구나 하나쯤 자신의 아킬레스를 갖고 있어요. 사모님한테는 무엇이 가장 힘드신가요?

소극적인 성격이다 보니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동에 제한받아 담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가끔은 스스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연마기 작업하고 먹는 저녁밥입니다**



□□□  
**운동 가기전에 찰칵 !!**  
**다들 건강하세요 ~**  
□□□



□□□□  
**먹방 유튜브 채널에서**  
**섭외 제의가 있어 인터뷰를 했는데**  
**저의 연기력 부족으로**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ㅠㅠ**  
□□□□□

<기도>

주님!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았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요단을 가르던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의 장막을 세우고  
높은 곳에서 그 손을 펴시고  
나를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입게 하소서

넓은 곳에 세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더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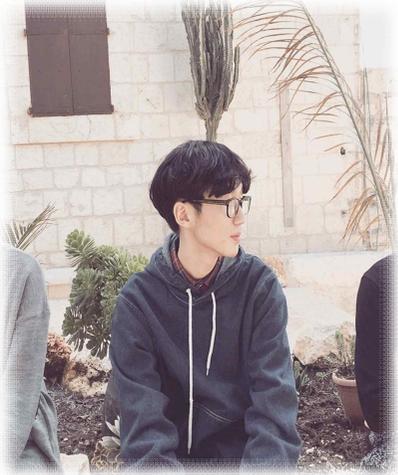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본 그 곳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과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문제들과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절망으로 가득 할지라도

나는  
나의 발이 밟는 곳을 허락하신  
주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이 계절의 소담스런 열매를 바라보듯  
나의 발에 힘을 주며  
내가 소망하는 그 땅을 밟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겠습니다

순복음 성도

# 칭찬하는 습사리!



얼마 전 군 복무를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와 우리 교회의 모든 미디어와 행사의 사진을 전담하듯 살뜰히 챙기는 능률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찬양의 목소리가 천상의 소리라도 같은 이성재 청년입니다. 찬양 부를 때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훌~~딱 반했을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알고 있는 지?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CCM 음반 하나 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서 목사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이성재 청년을 아마 하나님께서도 흡족한 미소로 바라보실 겁니다. 아직 학업에 충실해야 하고 인생의 목표를 위해 바라보고 노력하며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통한 축복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네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 감사릴레이

박두식 권찰님

감사릴레이에 동참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제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열매로 회사 정직원이 되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시고 이사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9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밟으며 성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자 : 민이삭 권찰님



# 특린그림 찾기 2020 NEW 특린곳은 5곳



당진 남녀 의용소방대 월례회와 심폐소생술 연습하는 모습이기도  
일도 하고 필요한 곳에 봉사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진고 운영위원회와  
행복나눔 봉사회에서  
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올 추석 명절 고기 음식은  
한복선 갈비로 정하었어요.  
반신반의 하며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

# 다니엘유초등부 알아가기

## 전단아 어린이



1.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세요.
  - 계성초등학교 5학년 전단아입니다.
2. 단아의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 저희 아버지는 포크레인을 하시고  
어머니는 음식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언니는 공감을 자주 해주고  
슬에는 양보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3. 단아가 평소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 저는 다윗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4. 요즘 코로나로 교회, 학교 등 많은 것들이 제한 받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 가족과 같이 제주도에 놀러가서 수영하고 싶어요!

5. 우리 교회에 많은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신데  
단아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싶나요?

- 저는 찬양 봉사를 하고 싶어요^^  
(찬양 리더자님들~단아의 고백은 잘 기억해주세요!)

6. 성경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베드로입니다.  
이유는 12제자 중에서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7.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께 한 마디 해주세요.^^

- 지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격고 있지만 같이 기도해서  
코로나19가 꼭 없어질 수  
있도록 힘내요! ^^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이보다 멋진 날이 있을까요?

요즘 감기로 식욕마저 잃었다.

아는지 모르는지 평상시처럼 대해주는  
아내가 조금은 섭섭하게 생각되는 어느 날

친구 약속 때문에 나가려 하는데  
주름진 얼굴의 아내는 만원이 필요하다며  
찬찬한 미소로 손을 내민다.

또 평소 주문 한번 하지 않던 아내는 나에게  
방울토마토가 먹고 싶다고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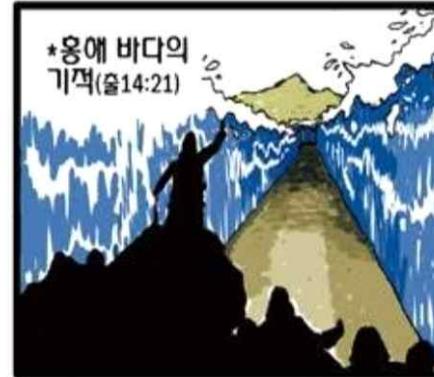
그동안 살아 온 세월 중에  
나에게 투정도 애교도 부릴 줄 모르던  
아내의 주름진 손에 만원 1장을 쥐어주고  
집 문을 나서며 잠깐 생각에 잠긴다.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

평생 좋은 음식 모두 사랑하며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족해 하던 당신이~

구멍 난 양말을 기워 신고도  
자식들에게는 새 양말을 신기던 당신...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며 내민  
아내의 손이 하루 내내 자꾸만 떠오른다.

## \* 사라진 기적? - essay.32 -



성경속에는  
100여 가지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혹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기적이며  
오늘의 우리와는 거리가 먼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nooriart@naver.com

**\*오늘날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이 사라진 것이다!!**

# 성경 퍼즐

1 곡	2								
	3 구		4						5 상
			6 자		7 심			8	
					9	10 르		고	
						11	리		12 라
						벤			

## 가로

1. 요셉은 형들의 00단이 자신의 00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3. 착한 형 르우벤은 요셉을 나중에 구해 주려고 000에 던지자고 제안을 했다.
6.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너무나 000이 많이 상해서 그만 요셉을 죽여 버릴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8. 개그맨 김병만의 별명, TV에서는 <생활의 00>을 방송하지. “안 해 봤으면 말을 말어.” 자, 우리는 성경의 00이 되자!
9. 흔히 이 영화의 00는 코미디다. 혹은 공포물이다. 하는 표현을 쓰곤 해. 영어로 된 단어인데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성경의 00는 무얼까? 그라마? 코미디? 다큐멘터리?
11.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 집,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는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 세로

2.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뜻,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00!
4. 돈을 빌렸다 갚을 때는 꼭 00에게 은 몇 조각을 받고 요셉을 팔아 버리고 말았다.
5. 장사하는 사람, 형들은 이집트 00에게 은 몇 조각을 받고 요셉을 팔아 버리고 말았다.
7. 영어로는 하트라고 하지.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기관이란다. 이게 멈추면 사람은 그만 죽고 말아.
8. 국자에 설탕을 녹여서 그 위에 여러 무늬를 찍은 후 무의개로 살살 떼어 먹는 옛날 과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선택해서 도전해 보는 것도 재밌겠지?
10. 다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000이라는 형은 요셉을 나중에 살려 주려고 구덩이에 넣자고 했다.
12. 요셉의 어머니이자 야곱의 두 번째 부인. 야곱이 도망간 하란에서 첫눈에 반했다.

<지난호 정답>

##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투수 '존 스몰츠'는 한 때 심각한 슬럼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슬럼프의 원인은 바로 실투였습니다. 그가 던진 실투는 타자에게 정통으로 맞았으며 그 실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던졌지?'

훈련을 할 때도 경기를 할 때도 이 질문이 항상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훈련도 경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존 스몰츠 선수의 경기 실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으로 더욱 침울해진 존 스몰츠 선수의 슬럼프는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을 찾은 존 스몰츠 선수에게, 의사가 내놓은 처방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2분짜리 동영상 보여 주면서 그것을 계속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존 스몰츠 선수가 완벽한 피칭을 보여주는 장면이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존 스몰츠 선수는 그 동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실제 경기 중 다시 실수했을 때도 그 동영상 속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당당한 모습과 함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슬럼프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 성취감과 자신감이 충만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슬럼프를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슬럼프가 극복 될 수 있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울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아내에게 실컷 먹여주려고..

현관문을 여니 내가 좋아하는  
생태찌게 냄새가 코끝에 스민다.  
반갑게 활짝 웃음으로 맞아주는 아내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생글 모습으로 밥상에 마주앉은 아내가 한마디 건넨다.  
"미역국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생태찌개가 좋을 것 같아서..."

순간 나도 몰래 벽걸이 달력에 눈이 갔다.  
결혼 50주년이란 까만 글씨가  
오늘 날짜에 선명하게 찍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아내는 만원이 필요 했나보다..  
내가 좋아하는 생태찌개를 준비하려고..

다행히 방울토마토를 준비한 나와 아내는  
단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금혼일 저녁을 보냈다.



요란한 이벤트와 선물의 값어치가  
사랑의 크기를 가능하는 이 시대!  
여기... 보글 보글 생태찌개보다  
더한 감동과 사랑이 있겠습니까?

##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호머 헐버트 선교사

띄어쓰기도없고쉼표도없고마침표도없는글을읽는것은매우불편한일입니다



미국인 호머 헐버트 박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위에 글처럼 불편하고 답답한 문장을 읽고 쓰면서 지내고 있을지도 혹시 모릅니다. 1886년 7월 23세의 청년이었던 호머 헐버트는 조선의 청년들에게 서양 문화와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고 제물포를 통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조선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호머 헐버트는 조선인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의 ‘사민필지’를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순 한글로 만들어진 조선 최초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한글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순간 미국인 선교사가 아닌 한글학자가 된 그는 미국에 한글 교본을 출간하는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재필, 주시경 등과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이 신문은 한글에 최초로 띄어쓰기를 실천한 한글 신문입니다. 그리고 헐버트 박사는 주시경 선생들과 함께 한글을 연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연구하고 발표했던 한들의 띄어쓰기를 이 신문에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한글의 뛰어남을 잘 알았던 호머 헐버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익히기 어려운 한자를 그만 버리고 한글을 채택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의 사후 1950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을... 그리고 2014년 한글날에는 대한민국 금관 문화 훈장까지 추서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유언대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1999년 50주기에 세워진 기념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 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구전으로만 전하는 아리랑을 최초로 악보로 정리했으며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황제의 밀서를 전하러 시도하고, 헤이그 특사 파견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시던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조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헐버트 박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이다

-- 펄벅 --

다만 이백이 아니라 우리가 호란중에도  
즐거워하니 호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라

종 5:3-4



## 압살롬(Absalom)

압살롬은 '내 부친은 화평'이라는 뜻이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책잡을 곳이 없을만큼 미남으로 칭찬을 받았다. 압살롬에게 동복 누이 다말이 있었는데 그도 용모가 아름다웠다.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다말을 폭행했을 때 다윗은 이년이 지나도록 암논을 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을 때 왕자들을 다 초청한 자리에서 암논을 살해하였다.



그후 그술로 도망하여 삼년동안 숨어살다가 요압의 지기로 드고아 여인의 비유를 듣고 다윗왕의 마음을 돌이켜 압살롬을 귀환시켰다. 그러나 압살롬은 부왕을 모반할 계획을 세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써서 민심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기의 거사계획을 헤브론에서 세워 아히도벨과 함께 이백명의 군사와 12지파의 지지자들로 나팔소리와 함께 왕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은밀히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된다. 그러나 에브라임에서의 다윗과 압살롬편의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난다.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걸려 살해되고 만다.

### ▷ 교훈과 적용 ◁

**첫째,** 사건을 감정으로 다스리면 더 많은 화를 불러일으킨다. 용서함으로 화해하자.

**둘째,** 압살롬의 반역은 부모까지 적대시하는 패륜이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

## 사 위 들 -

장모가 세 명의 사위 중에서 누가 가장 자신을 위하는지 시험 해 보기로 했다.

장모는 먼저 첫째 사위를 데리고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 산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장모가 강물로 뛰어 들었다. 첫째 사위는 재빠르게 장모를 구했다. 다음 날 사위의 집에는 '장모로 부터~'

라는 메모와 함께 국산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위를 시험 해 보기로 했다. 장모는 또 다시 뭍에 뛰어 들었고 두 번째 사위도 어김없이 장모를 구했다. 다음 날 두 번째 사위의 집에도 첫째 사위와 같이 장모로 부터 라는~ 메모와 함께 국산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다음은 셋째 사위의 차례! 장모는 셋째 사위와 함께 강가로 산책을 하다가 또 다시 강물로 뛰어 들었다. 그런데 셋째 사위는 장모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 버렸다 장모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셋째 사위의 집에는 외제 고급 승용차 'BMW'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장인으로 부터~



# 시사용어 Briefing

## 비말 감염(飛沫, Droplet)

비말이란, '飛(날 비),沫(물거품 말)'이다. 말(沫)은 '침, 침방울'이라는 뜻도 된다.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침방울'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droplet'이라는 의학용어가 쓰인다. 호흡기로 전염되는 가장 보편적인 감염방식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미세한 작은 침방울이 포함되어 감염시킬 수 있다. 비말크기는 5 $\mu$ m(마이크로미터, 5/1000 밀리미터) 이상으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비말이 날아가는 거리는 1미터 이내 정도이나 안전을 위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2미터 이상 떨어지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의 크기는 약 0.1 $\mu$ m 정도로 KF94마스크나 N95마스크의 구멍보다도 작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단독으로 퍼지지 않고 감염자의 침방울, 즉 비말에 묻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차단율이 비교적 낮은 KF80마스크로도 충분히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감염상태라면 자신의 비말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또한 3중 구조로 된 의료용 마스크의 경우 바깥쪽의 방수부분이 비말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을 대폭 낮춰줄 수 있다.

## 팬슈머(Fansumer)

팬슈머는 팬(Fan)과 컨슈머(Consumer)를 합친 신조어다. 팬들이 직접 투자와 제조 과정에 참여해 상품이나 브랜드를 키워내는 소비자를 뜻한다. 팬슈머는 생산 과정에 참여해 브랜드를 키웠다는 경험에 즐거움을 느끼고 소비에 참여한다.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캐릭터 등 이미 유통 중인 상품과 콘텐츠를 다량으로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전 세대를 아우르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EBS 크리에이터 팬수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새롭게 떠오른 팬슈머 열풍에 전문가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제의 주축으로 전입하는 20~30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정의한다.

## 음압병실(음압격리병상)...(陰壓病室)

'음압(陰壓)'이라는 말은 '압력이 낮다'란 뜻이다. 병실 내부의 기압이 바깥보다 낮은 병실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병실의 기압이 낮으면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만 유입되므로, 오염된 공기가 바깥으로 유출되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 우리나라에서는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관리기관은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 코호트격리(Cohort Isolation)

'코호트(cohort)'는 통계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 즉 동일 집단을 뜻한다. 보통 코호트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동일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하며 양자를 비교하는 연구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서의 코호트격리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곳을 하나로 묶어서 통째로 격리하는 방식이다. 환자 뿐 아니라 병원의 의료진까지도 모두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보고 격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메르스가 확산되던 2015년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2020년에 집단 발병 등으로 인해 병원 전체 또는 아파트 전체를 코호트 격리한 바 있다. 코호트의 어원은 고대 로마 군대의 편성 단위인 '코호스(cohors)'로 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퀀텀(Quantum, Qtum)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적 특징을 결합한 블록체인. 내부 화폐로 동명의 토큰인 퀀텀(QTUM)을 사용한다. 2016년 싱가포르의 퀀텀 재단(Qtum Foundation)이 개발해 발표했다.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능을 통해 기존의 블록체인 생태계와 원활하게 호환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란 블록체인에 여러 조건을 설정한 전자계약 기능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기록하면 블록체인을 사용해 계약 이행을 보장한다. 서류상 계약과 달리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향후 금융과 투표, 부동산 등의 각종 계약과 사물인터넷(IoT)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 후 얼마 동안은 형에게 버버리라는 말도 안하고 고분고분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제일 싸움 잘하던 강패 같은 녀석이 형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녀석은 형하고 나이가 똑같았는데 질 나쁘기로 소문난 녀석이었다. 나는 형에게 빚진 것도 있던 만큼 형을 위해서 그 자식과 싸웠다.

싸우다가 보니 그 녀석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원래 애들 싸움은 먼저 코피 나는 쪽이 지는 것인지라 나는 기세등등하게 그 녀석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형이 갑자기 나를 말리는 것이었다.

나는 한참 싸움이 재미있던 판에 형이 끼어들자 화가 버럭 났다. 하지만, 지은 게 있던지라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러서고 말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후로 그 강패 녀석과 형이 아주 친해지기 시작했다.

형은 사람을 아주 편하게 해 주는 구석이 있었다. 사실 나는 형의 그런 면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 면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 귀여움을 더 못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형과 그 강패 녀석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장롱 밑에서 담뱃갑을 꺼내더니 형하고 나한테 권하는 것이었다. 그때 담배라는 걸 처음 피워 보았다. 형과 나는 꼴록꼴록 대며 피웠는데 그걸 본 그 강패 자식이 좋아라 웃던 기억이 난다.

형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세 번째 수술을 받았다. 그 후로는 입술 위에 반창고 붙이는 짓은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말더듬는 버릇은 잘 고쳐지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나는 다시 형에게 버버리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TV에서 """"언청이""""란 말을 처음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얼마 후에 그 말이 바로 우리 형과 같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그런 희귀한 단어를 알게 된 게 참 신기했다. 그리고, 며칠 후 형에게 버버리대신 언청이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을 들은 형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말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당한 표정으로 듣고 있더니 내 머리에 꿀밤을 먹이면서 "그 말을 이제 알았구나?" 하며 웃어주었다. 웬지 그런 형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형에게 다시는 언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나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나보다.

##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 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 어느 형제 이야기

어린이를 구하다가 대신 숨진 한 포항 공대생에 관한 이야기로 그의 동생이 쓴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은 언청이였다.

세상에 태어난 형을 처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젖꼭지가 아니라 차갑고 아픈 주사바늘이었다.

형은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야 했고 남들은 그리 쉽게 무는 어머니의 젖꼭지도 태어나고 몇 날 며칠이나 지난 후에야 물 수 있었다. 형의 어렸을 때 별명은 방 귀신이였다.

허구한 날 밖에도 안 나오고 방에서만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하기는 밖에 나와보야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나 되기 일쑤였으니 나로서는 차라리 그런 형이 그저 집안에만 있어 주는 게 고맙기도 했다.

나는 그런 형이 창피했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형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비록 어렸을 때였으나 수술실로 형을 들여보내고 나서 수술실 밖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기도드리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형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은근히 형에 대한 질투심이 들었다.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드리던 그 순간만큼은 저 안에서 수술받고 있는 사람이 형이 아니라 나였으면 하고 바랬던 것 같기도 하다.



어머니는 솔직히 나보다 형을 더 좋아했다. 가끔씩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는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항상 형은 착하고 순한 아이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장난꾸러기였다.

"그네를 태우면 형은 즐겁게 잘 탔었는데 너는 울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넘어지고 그랬지."

형은 나보다 한해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수술 자국을 숨기기 위해 아침마다 어머니는 하얀 반창고를 형의 입술 위에도다가 붙여 주시고는 했다. 나 같으면 그 꼴을 하고서는 창피해서 학교에 못 갈 텐데 형은 아무소리도 않고 매일 아침 등굣길에 올랐다.

형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몰랐지만 아마 고생까나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언제부터가 형에게는 말을 더듬는 버릇이 생기고 있었다.

나는 그런 형을 걱정해 주기는 커녕 말할 때마다 버벅거리다고 "버버리" 라고 놀리고 그랬다.

형이라는 말 대신 버버리라고 불렀고 내 댄에는 그 말이 참 재미있는 말로 생각되었다.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는 무서워서 감히 버버리란 말을 못 썼지만 형하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버버라 버버라' 이렇게 부르곤 했다.

형은 공부를 잘했다. 항상 반에서 일등을 하였다. 비록 한 학년 차이가 나긴 했지만 형의 성적표는 나보다 항상 조금 더 잘 나오곤 했다. 어쩌면 그런 형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더 그런 말을 쓰고 했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형이 어머니에게 무진장 매 맞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때 나는 그 당시 내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한참 만화와 오락에 빠져 있었는데 항상 용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매일 밤 어머니의 지갑에서 몇 백원씩을 슬쩍 하고는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은 간 크게도 어머니의 지갑에서 오천원이나 훔쳐서(그 옛날 오천원은 참 큰돈이었다)

텔레비전 위의 덮개 밑에 숨겨 두었는데 그게 그만 다음 날 아침에 발각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당연히 나를 의심했다.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였다. 게다가 그 며칠 전부터 돈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던 어머니였던 지라 두려운 마음에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철저하게 잡아땀다. 다음에 어머니는 형을 추궁했다. 형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 줄 몰라 했다. 찰라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염치없게도 형의 대답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 위기를 빠져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형은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믿었던 형이었기에 더욱 더 화가 나셨고 나는 죽도록 어머니에게 매 맞고 있던 형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형이 그렇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니 철없던 내 마음에도 형에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버리고서 방 한구석에 엎드려 있던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형은 숨조차 고르게 쉬지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즐거워야 할 어머니의 생일 날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태어나 어머니를 슬프게 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못이 되었었나보다. 그리고 보니 형에게는 백일 사진도 없고 첫 돌 사진도 없다. 언젠가는 형이 어버이날 어머니 선물로 비싼 지갑을 사온 적이 있었다. 어머니도 참 그 선물을 보시고는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지갑은 벌써 하나 있는데 가서 다른 걸로 바꿔 올 수 없나?" 그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형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후 그 지갑을 항상 곁에 지니며 다니셨다 마치 형의 분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형은 대학교 2학년 겨울에 또 수술을 받았다. 정말 끝이 없을 거 같던 형의 수술도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때는 집안도 넉넉해져서 형의 수술비용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술 일자가 개강과 이상하게 맞물려서 형은 할 수 없이 한 학기동안 휴학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다. 형의 얼굴도 많은 수술 덕분인지 약간의 수술 자국을 제외하고는 어느새 정상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형과 이십년 넘게 살아오면서 형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한편, 학력고사에 한번 낙방했던 나도 힘든 재수 끝에 용케 Y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우리 집은 참 행복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어렸을 적 형이 매 맞았던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형과 나를 바라보셨다. 형은 밤마다 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어깨며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는 했다. 어머니는 나보다 형이 주물러 드리는 걸 더 좋아하셨다. 형이 안마를 해 주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마 어머니는 사하라사막 한가운데라도 형만 옆에 있으면 행복해 했을 것이다.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었다. 8월이 되자 형은 복학을 했다. 어머니는 떠나는 형을 보내기가 못내 아쉬웠던지 한 학기 더 휴학하면 안되느냐고 형에게 말했다. 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어머니 곁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포항으로 떠나버렸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있었다. 날짜를 세어보니 조금 있으면 어머니의 생일이자 형의 생일이겠구나 싶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닐 적 어버이날이었다. 학교가 파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무슨 편지 같은 걸 읽으시면서 울고 계셨다. 어머니는 잠시 후 그 편지를 어느 조금은 초라하게 생긴 핸드백 안에 넣으셨다. 나는 어머니가 방을 나가신 후 몰래 들어가 그 핸드백을 열어 보았다. 그 안에는 조금 빛바랜 편지봉투부터 쓴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편지까지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지금 막 읽으셨던 듯한 편지를 꺼냈다. 형이 쓴 편지였다. 형이 매해 어버이날마다 썼던 편지를 어머니는 그렇게 모아놓고 계셨던 것이었다. 편지내용을 읽어보고는 나는 왜 그토록 어머니가 형을 사랑하고 형에게 집착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내가 형처럼 태어났다면 나는 나를 그렇게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 했을텐데 형은 그 반대였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태어남으로 해서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셨을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고 또 위로하고 있었다.

어느덧 한 해가 또 지나고 형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다음해 나도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한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형과 나는 다른 학교를 배정 받았다. 형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항상 1등을 했다. 나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항상 형보다는 조금 못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형이 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끔씩 형의 일기를 훑쳐보곤 했는데 형은 시인이었던 것 같다. 형이 지은 시는 이해하기가 참 쉬웠다. 교과서에 실린 시들처럼 복잡한 비유나 은유 같은 것도 없었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를 많이 썼다. 그런데,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맴도는 그런 시들이었다. 나는 형이 썼던 시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다. 형의 영향으로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쌍방"""" 이라는 문학 씨클에 가입하게 되었다. 연합 씨클이라 여학생들도 참 많았다. 한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는 형과 다른 곳을 다녔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형과 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나는 또 고등학교 때 갑자기 키가 부쩍 자라 형보다 10cm는 더 크게 되었다. 게다가 나는 얼굴도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생겨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는 형이 불쌍했다. 키도 작지,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겼기를 하나, 말을 잘하나, 형을 보며 나는 무언가 우울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거에 형은 전혀 무감각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다. 집을 나서는데 참새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죽어 있었다.

나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서 착한 일 한답시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왔다. 참새를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다. 그때 형이 대문을 나왔다. 나는 형이 칭찬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형은 모처럼 착한 일 하려고 하는 나를 만류했다. 그러더니, 손수건을 꺼내 그 죽은 새를 담더니 집 뒤의 야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나는 학교에 늦을까봐 미리 집을 나섰다.

형은 그날 지각을 해서 운동장에서 기합을 받았다. 팍팍한 다리를 두드리며 올라오는 형에게 참새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뒷산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새를 묻고 나서 기도를 했다고 했다. 나는 내심 그깟 죽은 새 한 마리 땅에 묻고 나서 기도까지 한 형이 못마땅했다.

형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또 수술을 받았다. 정말 그놈의 수술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 말로는 형의 수술비로 집 한 채 값이 날아갔다고 한다. 우리 집은 가난했었다. 초등학교 때 까지는 일 년에 두 번씩 이사를 다녔다. 우리 집을 가지는 게 소원이었다. 거기다가 형의 수술비까지 대느라 언제나 쪼들렸다. 아버지가 벌어 오시는 것으로는 여림도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돈놀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다. 쉽게 말해서 고리대금업 이었는데 어머니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다.

채무자들을 어쩔 때는 참 심하다 싶게 몰아 부치시기도 했다. 부동산에도 손을 대셔서 지금 있는 집도 장만하시고 그러셨다. 어머니는 참 지독하셨다. 그리고, 너무 돈에 집착하고 그랬다. 극장도 한 번 안 가셨다. 극장가서 영화 볼 돈 있으면 차라리 맛있는 걸 사먹는 게 낫다는 주의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형은 항상 마음 아파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되셨다는 것이었다. 형은 어머니에게 누가 될 만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다. 적어도 내 기억에는 그랬다. 하지만, 그런 형에게도 어머니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하나 있었다. 형은 거의 돈을 쓰지 않았는데 그런 형도 돈을 쓰는 곳이 한군데 있었다.

길에서 거지를 보면 없는 돈에도 항상 얼마씩을 주고는 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내가 옆에서 아무리 저런 사람들 도와줘봤자 하나 소용없는 짓이라고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 형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이르면 어머니는 형을 참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하셨다.

돈이라는게 얼마나 피나게 모아야하는 건데 저러느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형에게 항상 무서운 세상에 대해서 말하시곤 했다. 그러시면서, 말끝머리에는 항상 이런 말을 붙이셨다.

"너는 공부 못하면 시체야..."

형은 시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일까...?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형이 자기 자신 때문에 뭘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곁에 항상 여자가 많아서 용돈이 부족하고는 했다. 좀 부족하긴 했지만 어렸을 적처럼 어머니 지갑을 뒤킨 않았다. 형이 나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매를 맞았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또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해 겨울 우리 집에 경사가 하나 났다. 형이 대학에 합격한 것이었다.

그런데, 형은 서울의 졸다하는 대학을 다 마다하고 지방에 있는 P공대를 지망해서 합격했다.

나는 참 알 수가 없었다. 서울이 얼마나 놀기가 좋은데 그 외진 데까지 찾아가는 지 이해가 안되었다.

형이 서울을 떠난 날...

나는 그때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보이시는 건 처음 봤다. 형이 떠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손수건이 눈에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그런 어머니가 보기 싫어 그날은 혼자서 시내를 배회하다가 집에 돌아왔다.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형이 없어지니까 집안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형은 자주 편지를 썼다. 그리고, 어버이날마다 선물을 들고 집에 찾아오곤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형은 어머니 생일날에는 선물을 하지 않았다. 꼭 어버이날 그렇게 선물을 들고 오고는 했다. 참 아직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형하고 어머니는 생일이 같다. 어머니말로는 예정일을 보름이나 당겨서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생일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띠까지 같았다. 그렇게 되기도 참 힘들 거 같은데 어쨌든 형하고 어머니는

인연이 참 깊다. 형은 어머니 생일날 태어난 걸 항상 어머니에게 미안하게 생각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집사회 헌신예배 / 10월 4일 오후5시
2. 권사회 헌신예배 / 10월 11일 오후5시
3. 교회창립27주년감사예배 / 10월 18일 오전11시
4. 권찰회 헌신예배 / 10월 25일 오후5시
5. 가을단풍여행 / 10월 22일 오전9시 출발

장소 : 강천산

● 공지사항

1. 10월 생활실천표어 : 네가 밟는 땅을 얻으리라
2. 10월 신앙서적 : 교회 밖 하나님나라 '김형석' 저

● 이달의 교우소식

1. 득녀 / 김성광(유혜진)성도 - 10월 16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

어머니의 생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그날은 왠지 기분이 참 안 좋았다. 어머니는 나보다 더 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 말씀이 마치 심장이 위로 올려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셨다. 나는 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셔서 그러는가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형을 걱정하고 계셨다. 아무래도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종일 초조하게 보내시던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니 금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부리나케 형이 있는 포항으로 내려갔다. 의사 선생님 말이 머리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소생할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숨이 붙어 있는게 기적이라고 말했다. 하얀 시트를 가슴 위까지 덮은 형이 얼굴에 산소마스크를 하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형의 머리맡에 놓여진 오실로스کو 우프에는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형의 맥박이 보였다.

어머니는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형에게 다가갔다.

그러시더니 떨리는 두 손을 모아 누워있는 형의 손을 꼭 잡으셨다. 그 순간이었다. 연약하게 뒹던 형의 맥박이 조용히 긴 수평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태 기다리다가 그제서야 안심하고 떠나는 것처럼...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어떤 어린 여자아이를 트럭이 덮치려는 순간 형이 그 앞에 뛰어 들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여자아이는 팔을 조금 다치고 말았는데 형은 트럭에 치이고 나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슬픔에 넘어 나가버렸는데 나는 그 순간 묘하게도 ""참 형다운 최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천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상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테니까 말이다. 그런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한동안 하며 통곡을 하고 계신 어머니 옆에 넘어 나간 채 서있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무덤과도 같았다. 어머니는 음식은 커녕 물조차 드시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그렇게 떠난 형에게 한없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어머니는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온몸에 열꽃이 피기 시작했다. 참 지독한 열병이었다. 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영양제를 놓아주면서 환자 스스로 일어나야지 별다른 수가 없다는 말을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산사랑은 어쨌든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못 듣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지쳐서 더 우시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누워만 계셨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고열에 시달리시고는 했다. 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생일날, 아니 형의 생일날에 맞춰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곳으로 형을 따라 가시려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드디어 어머니의 생일날인 형의 생일날이 돌아왔다. 그날 아침 눈을 떠 보니 밤새 눈이 내렸었는지 온 세상이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평소 친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한 분 두 분 모여들었다. 아주머니들은 다들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어머니는 눈조차 감으신 채 아무 말도 못 듣는 것 같았다. 나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그날 오후였다. 초인종소리가 들렸다. 나는 또 어느 동네 아주머니겠거니 하고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정말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처음 보았다. 수백송이의 꽃들이었다. 이제껏 그렇게



많은 꽃을 본 적이 없었다.

배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꽃을 배달해 보기는 처음이라는 말을 했다. 하얀 눈밭위에 수백송이의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져 있었다. 정말 황홀하도록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누가 보냈는가 보았더니 바로 형.이.었다.

어머니가 어느새 나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계셨다. 어디서 그런 기력이 다시 생기셨는지 애써 문뜰에 의지하며 서 계셨다. 나는 형이 남긴 짙은 생일 축하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어머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어머니 곁에서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다. 언제 꽃 배달을 시켰는가 보았더니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생일에는 절대 선물을 하지 않던 형이.....

꽃 같은 것은 관심에도 없으셨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어머니의 생일 바로 자신의 생일에 보내온 것이었다. 그때 문득 마당에서 맴돌고 있는 참새 한 마리를 보았다.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참새 한 마리가 마당에 앉아 있었다. 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알았는지 참새는 날갯짓을 파닥거리며 날아올라 마당을 한 바퀴 휘 돌더니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나는 그렇게 높이 나는 참새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아득히 날아오르더니 하늘 끝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다시 찾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이 바뀐 걸 알게 되었다.

옛날에는 항상 돈에 얽매이고 근심이 가시지 않던 어머니의 눈빛에 한없는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아침!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보니 형이 선명회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한 어린이를 돕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그 아이의 후원자는 바로 나다. 평생에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거 같은 걸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한 달에 한 번씩 지로로 후원금을 부쳐주고는 한다. 그동안은 자동이체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지내기가 일쑤였다. 그 애하고 만나봤는데 그 애 말미 형은 크리스마스나 그 애 생일뿐만 아니라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용품도 사서 부쳐주고 편지도 자주 써주고 그랬단다. 그 애는 형이 참 보고 싶다며 지금 형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나는 차마 형이 죽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사정이 있어서 저 하늘 너머 먼 나라에 가 있다고만 말해 주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뒤돌아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 애의 목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다.

"그렇게 좋은 형과 한집에서 매일같이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바보같이 그제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형과 지낸 지난 이십여년 간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었는가를....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던가...

아이에게 무어라 대답을 해 주어야 할텐데 갑자기 목이 메여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던 형의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매일같이 동네 아이들과 어울렸을 때 혼자서 방을 지키던 나의 형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말까지 더듬어대던 우리 형에게 위로의 말은커녕 그보다 더 괴롭히기만 했던 나는 나쁜 동생이 아니던가?

그런 못된 동생을 위해서 매까지 대신 맞아주던 착한 우리 형...

아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돌아서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렇게 좋은 형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단다."

하지만,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눈앞이 그만 부엌게 흐려지고 말았다. 나는 솔직히 이 애한테 형이 했던 것처럼 할 자신은 없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이 다.

그래야 천사의 동생이 될 자격을 갖게 될테니까.